

## 메시지 5

###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

성경: 빌 3:7-10, 요 11:25, 엡 1:19-20, 골 1:24

#### I.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알기를 열망했다 — 빌 3:10.

- A. 그리스도께는 고난과 죽음이 먼저 오고 나서 부활이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분의 부활 능력이 먼저 오며 그다음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 뒤따른다 — 빌 3:10.
- B. 우리는 먼저 그분의 부활 능력을 받는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능력으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수 있다.
- C.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두 범주가 있다. 한 범주는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께서 이미 완성하셨다. 다른 한 범주는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고난이다. 이것은 사도들과 믿는 이들이 채울 필요가 있는 고난이다 — 골 1:24.
  1. 우리는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지만,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비교 계 1:9, 딤후 2:10, 고후 1:5-6, 4:12, 6:8-11.
  2.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요 1:29), 밀알이신 그리스도는 재산출과 건축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12:24).
    - a. 주님은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로서, 부활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많은 밀알 속에 해방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통해 그분의 혼생명을 잃으셨다 — 요 10:11, 15, 17-18.
    - b. 하나의 밀알은 몸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고난을 완성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많은 밀알들이 우리가 하나의 밀알이 고난받으신 것과 같이 고난받아야 한다 — 요 12:24-26.
      - (1) 많은 밀알인 우리 역시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죽음을 통하여 혼생명을 잃어야 한다 — 요 12:25.
      - (2)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그분을 따르는 것이며, 우리의 혼생명을 잃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활하는 이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 요 12:26.
      - (3) 교회가 생겨나고 증가하는 길은 사람의 영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의한 것이다 — 요 12:20-24.
- D. 우리의 변화를 위한 고난과 몸을 위한 고난에는 차이가 있다 — 고후 3:18, 빌 3:10, 골 1:24.
  1.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변화를 위한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2. 빌립보서 3장 10절과 골로새서 1장 24절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고난이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3.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여겼다.
  4.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그분의 고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 빌 3:10, 비교 행 9:4-5.
  5. 몸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 골 1:24, 빌 3:10.

#### II.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했다.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생활의 틀로 취하기를 갈망했음을 가리킨다.

- A.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김, 그리스도를 얻음, 그분 안에서 발견됨, 그분을 앎,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앎,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앎은 모두 한 가지,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으로 귀결된다 — 빌 3:7-10.
- B.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의 틀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 빌 3:10.
1. 빌립보서 3장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문제이다 — 빌 3:7, 9, 12-16.
  2.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틀 안에 넣어졌고, 이제 우리는 이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 갈 2:20, 롬 6:3-5.
  3.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며,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틀 안에 넣는다 — 요 11:25, 엡 1:19-20.
- C.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 인간 생명을 계속적으로 죽음에 넣으신 그리스도의 체험을 가리킨다 — 요 6:57상.
1.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심으로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계셨고 하나님을 사셨다 — 갈 2:20, 3:1, 5:24.
  2. 그분은 항상 자신의 인간 생명을 죽음에 넘기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흘러 나올 수 있었다 — 요 10:10하-11, 17.
  3. 그분은 사시면서 또한 죽고 계셨다. 즉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삶을 사시기 위해 옛 창조물에 대하여 죽고 계셨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오는 ‘그분의 죽음’의 의미이다.
- D.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생활의 틀로 취하는 것이다 — 요 10:10.
1.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 틀이다. 이것은 밀가루 반죽이 빵틀에 넣어져 그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과 흡사하다.
  2.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에 두셨고, 우리가 이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날마다 우리를 형태 짓고 계신다 — 롬 6:3-4.
  3. 우리의 생활은 이러한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곧 신성한 생명을 살기 위해 우리의 인간 생명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 갈 2:20, 고후 4:10-11.
  4.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죽음에 넘긴다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이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생명이 해방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체험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될 것이다 — 요 10:10하, 요일 5:11-12.
  5.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에서 타고난 사람은 죽음당하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자아는 무력하게 된다 — 고후 4:16, 롬 6:6, 마 16:24.
  6.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이 틀 안으로 밀어 넣도록 허락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으로 형태 지어질 것이다 — 롬 8:28-29.
- E.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수록 우리는 아버지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한다 — 요 12:28, 13:31.